

# CD-ROM화된 中華民國 國立中央圖書館의 中國書誌시스템

金 昌 根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본고는 1969년 4월 창간된 中華民國 臺北市 所在 國立中央圖書館 뉴스레터인 國立中央圖書館通訊 Vol. 22, No.4(1991. 2)에 수록된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역자는 경제수준으로 비교할 때 항상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臺灣이 정보분야 정책입안과 실행에 있어서는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사실에 부러운 한편 아연해하는 심정으로 본 기사내용을 도서관계 여러분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싶어서 圖書館文化의 지면을 빌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자 주>

도서목록과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을 수록하고 있는 대만 최초의 중국서지 CD-ROM시스템은 1991년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발표되게 되었다.

시스템에 대한 작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서양언어로 기술된 자료에 대한 컴퓨터처리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library Corporation의 Bibliofile을 활용하기 시작한 1986년에 시작되었다. Bibliofile의 활용사업계획의 성공적인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중국자료 CD-ROM시스템을 설계하려는 의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은 ITRI 즉, 산업기술연구소(Institute of Technology Research on Industry)의 기계공학연구시험소와 공동으로 시스템개발을 위한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ITRI는 최근에 CD-ROM으로 된 英漢辭典을 개발한 바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련 직원들은 CD-ROM 서지시스템 구축작업에 돌입하기 전에 JAPAN MARC CD-ROM과 UTLAS의 DISCOM, OCLC의 CD450, BNB(British National Bibliographies)의 CD-ROM과 같은 이른바 전세계적으로 이미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다른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한 바 있다.

### 기 능

스크린 처리

본 시스템은 메뉴 선택방식이며 이전에 탐색된 세

가지 항목과 결과에 대한 “Browse”, “Help” 그리고 “Save”는 윈도우로 처리가 가능하다.

### 탐 색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제명, 저자명, 서명, 분류번호, 출판사, 시스템 확인자, 그리고 ISBN/ISSN으로 탐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출판년도와 출판형태는 탐색 한정지시자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앞에 지정한 모든 탐색키 범위안에서 이용자는 “and’s”와 “or’s”를 사용하여 세가지까지 추가해서 부울 논리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특수숫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절단탐색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저자명, 서명, 분류번호/표를 전개할 수도 있으며 페이지 단위로 넘길 수도 있으며 곧 바로 목록 정보를 전개할 수도 있다. 구뎃점과 몇가지 불용어는 무시된다.

이용자는 세번째 이전까지 탐색된 항목이나 탐색 결과를 화면에 전개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윈도우를 열 수 있다.

이용자는 탐색비율과 탐색된 레코드 수의 표시를 포함한 탐색과정을 전개할 수도 있다.

### 탐색결과 제로에 대한 응답

만약에 탐색질문에 적합한 레코드가 탐색되지 못할 때는 메시지가 화면에 전개되고 시스템은 일람선택기능을 제공한다. 즉, Browse 화면으로 되돌아간다.

### 화면전개

시스템은 네가지의 화면전개 형식 즉, 표지형식 (Labeled), 상세형 MARC형식, 간략형 MARC형식(이때의 MARC 필드는 목록카드에 적용되는 정보만을 말한다.) 그리고 카드형식을 제공한다. 탐색결과 한개의 레코드만 검색된 경우에는 목록정보는 곧 바로 화면에 전개된다. 탐색질문에 한개이상의 레코드가 검색되면 개략형식이 화면에 전개된다.

### 온라인 해석

시스템은 “Waiting”과 “Error” 두가지의 메시지

를 제공한다. 도움말 메시지는 이용자에 의해서 설계될 수 있다. 만약 탐색결과 레코드수가 99개 이상이면 탐색지시자를 추가하라고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 인 쇄

이용자는 온라인 즉시 인쇄나 지정된 오프라인 인쇄를 선택할 수 있다. 일괄 인쇄를 하기 이전에 이용자는 인쇄될 데이터의 순서를 우선 재 정리할 수 있다. 교정인쇄, 카드, 레이블 그리고 목록은 물론 북포켓레이블 인쇄도 가능하다. 인쇄형식과 인쇄량은 이용자들이 결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카드에 인쇄되지 않을 필드를 지정할 수 있다.

### 편 집

본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도서관 소장정보를 입력하거나 목록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수정한 후에는 정보는 디스크에 다운로드 될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는 자료는 도서, 축차간행물, 지도 그리고 마이크로폼 자료이다.

### 분류표 탐색과 서지레코드 탐색의 연계

이용자가 중국분류표의 번호나 분류된 화일 그리고 서지레코드를 탐색하고자 할 때는 탐색작업 이전에 분류표를 전개해 볼 수 있다.

## 시스템

### 필수 요건

본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DOS 버전 3.1을 탑재한 IBM 호환형 PC/AT와 모노크롬 모니터, CCCII 중국어 인터페이스 카드 그리고 Philips CD 플레이어 필요로 한다.

### 수룩자료의 범위

1981년부터 1989년 사이에 발행된 약 100,000건의 도서, 축차간행물, 지도, 마이크로폼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 시스템의 기능

오프라인 처리 : 시스템은 스크린 하단에 메뉴를 전개함으로써 메뉴전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탐색, 복수항목을 지닌 단일 키(즉, 동일탐색 키에 의한 부울 논리 탐색), 원시목록, 기존정보의 편집, 기존정보의 보관, 디스크상의 정보탐색, 일괄열람(예를 들면 절단 탐색을 할 때나 레코드가 탐색항목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못할 때 이용자는 근접자료를 볼 수 있다), 레코드의 화면전개(MARC 형식), 화면전개 형식의 선택(상세형태 MARC, 간략형태 MARC, 카드형식, 표지형식), 이전탐색 개요 화면전개, 인쇄, 도움말 등이다.

일괄처리 방식 : 이 방식으로 이용자는 목록인쇄, 카드인쇄, 교정인쇄, 간략형태 MARC, 교정인쇄, 레이블 그리고 북포켓 레이블을 어떤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인쇄하기 전에 이와같은 사항들은 조정될 수 있으며 내장된 정보 또한 CCCII 즉, 중국어 정보교환용 문자코드나 ISO 2709 형식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출력물 색인화일들이 재구축될 수 있다.

파라미터 정의 : 본 시스템은 다섯가지의 정의기능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서명, 저자명, 주제명, 분류 또는 총서카드 등과 같은 인쇄형식의 선택 (2) 표지형식, 상세형태 MARC, 간략형태 MARC, 카드형식과 같은 화면 전개형식의 선택 (3) 인쇄는 서명, 저자명, 또는 청구기호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 (4) 이용자는 인쇄카드상에서 청구기호나 입수번호 등과 같은 소위 805필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5) 이용자는 어떤 필드가 카드상에 인쇄되지 않아야 하는것(예를 들면 서지표시, 주기사항, 색인주기, 부록등과 같은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시스템 평가

3년에 걸친 시험기간이 지난 후 CD-ROM화 된 중국서지시스템은 마침내 일상적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만족스러운 것은 자유중국의 목록 역

사상 크게 내딛는 즉, 발전적 일보라고 볼 수 있는 기술개발이 국내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복합탐색과 다양한 형식의 인쇄 그리고 편집기능은 차치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사용으로 도서관에서는 직접적으로 목록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카드를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본 시스템에 한가지 결점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는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본 시스템이 국제표준이 공포되기 일년전인 1987년에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서지시스템에서 채택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로는 다른 컴팩트디스크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근래에 와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산업기술연구소는 타 제품과도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ISO 9660 형식으로 시스템을 변환하는 방법을 해결했다.

### 역자후기

이상의 기사에서 보면 대만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컴퓨터 목록 데이터베이스 컴팩트디스크판은 국제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어 시험운영에 들어 갔던 탓에 일반 제품이 아닌 오직 Philips제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점을 지녔다고는 하지만 여타 기성제품에 못지 않은 기능을 가진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정보화 시대에 정보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을 뿐 실제 투자금액은 적은, 특히 데이터베이스 분야에는 극히 적은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부러운 것만은 틀림없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도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 주어야 하는 심각한 위치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발전을 이룩한 기초자원을 철강이라고 했을 때 그 사회는 철강이라고는 쌀을 먹고 성장했음에 틀림없을진대 이제 제2의 산업혁명은 정보에 의해서 주도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므로 제2의 산업혁명에 따른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라는 쌀을 잘 가꾸어 나아가야만 우리의 앞길은 밝고 넓게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